

서울근교 농촌 주택의 수납가구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3리 마을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

Change of Furniture for Rural House in the Vicinity of Seoul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조 교 수 박 영 순

연구조교 김 수 경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Yonsei Univ.

Assistant Professor; **Park Young Soon**

Research Assitant; **Kim Soo Kyung**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조사결과 분석

IV. 해석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yle and usage of furniture for rural house and to organiz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furnitu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2 residences in Samga 3-ri village in Youngin Kyungki-do by field survey method. Observation and interviewing mehtod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Taking pictures, measuring and sketching the furniture were also performed as a supplement of investigation. Qualitative analysis were done by discriptive method.

1) It was found that the major furniture for rural household were storing furniture such as wardrobes, blanket chests, drawer chests, cupboards until 1976. The time when the supportive furniture such as sofa sets and dining sets were purchased on the rural area was after late 1970's.

2) The style of the furnitur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ize, material, structure, finishing and ornamentation.

The changing process of style was from luxurious look to natural look. Therefore the storing furniture of the rural household showed a state of transition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style.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lace where the furniture were used, the cupboards showed to move from Marus (the living room area) to Buauks (the kitchens). The wardrobes were mainly used in An-Bangs (the master bedrooms) and Kuhnnun-Bangs (the

room opposite the master bedrooms), but the style of those wardrobes were different each other.

I. 서 론

가구는 인간과 건축물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주택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주거 공간 규범을 결정하여주고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과 더불어 주공간을 장식하여 생활의 미를 창조하고 사용자의 사회적 위엄과 지위를 타인에게 표출하는 생활도구이다(이경희 외, 1987). 따라서 가구는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 물리적 심리적 만족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가구의 기능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구는 주공간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기능이 발휘되므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 가구의 기능은 생활행위와 함께 주공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가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가구를 계획함이 바람직하다.

가구의 형태는 거주자에게 정서적 만족을 주기위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주자의 선호 뿐 아니라 그 당시의 가구재료, 가구의 제조기술, 경제적 여건등에 영향을 받는다. 가구는 사용자의 문화와 생활관습에 맞도록 고안되어 각 지역, 각 시대에 따라 적합한 기능과 형태를 표출하므로 가구 형태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시대, 그 지역의 생활상을 파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거양식은 좌식생활로 전통주택에서 사용했던 가구는 대부분이 수납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규모도 좌식생활에 맞게 나즈막하고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6.25사변, 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전통적가구 사용에 변화를 가져와 가구디자인이나 가구사용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수납가구는 서구식 가구의 도입으로 실내 공간에서 그 사용 장소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수납 공간의 양적 필요성이 더해 가면서 대형화되었고 가구 소유의 양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원, 1987, 한필원, 1987).

한편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는 60년대 이후 도시화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전통적인 주택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고 현대적인 내구 소비재와 가구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대형 수납가구가 실내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대형 수납가구의 도입은 원래 주어진 주공간의 상대적 협소를 유발시키게 되므로, 주공간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기존주택의 구조 변화와 증축까지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한필원, 1987). 또한, 농촌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질이 낮은 가구가 도입되었고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납가구가 구입되어 결과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가구계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주택의 가구계획을 아직까지는 도시에서 추구하는 편리성, 쾌적성, 장식성, 즐거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실용성, 경제성을 더 강조하는 실정이므로(손영미, 1985), 이를 감안하여 기능적 형태적으로 적합한 가구디자인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도시화, 근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시 근교 농촌주택의 수납가구, 종류 및 유형과 사용의 변화를 규명해 보고, 과도기적 형태로 사라져 갈 농촌 가구의 형태를 밝혀두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 (1) 농촌주택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종류를 파악한다.
- (2) 농촌주택 수납가구를 외관의 특징에 따라 유형화한다.
- (3) 농촌주택 수납가구의 소유량 및 사용위치를 파악한다.
- (4) (2), (3)의 결과에서 농촌주택 수납가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질적 접근 방법인 현지

연구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하여 그 변화과정을 밝힘으로서 농촌주택의 실내 계획과 가구 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가구에 대한 자료를 면접, 실측, 관찰기록, 사진촬영에 의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1. 조사지역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생활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서울근교 용인군 용인읍 삼가3리 마을의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선정기준은 도시의 영향을 쉽게 받는 서울근교 지역으로서 도시화의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적 단계별로 신축된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 유형의 차이를 보여 변화의 과정이 파악될 수 있는 곳으로, 조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관찰이 용이한 점도 고려하였다.

이 마을은 윗마을 13채, 아랫마을 32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45채중 조사가 가능하였던 32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주택중 도시적 생활 모습을 가진 양옥이 14채, 농촌의 생활 모습을 가진 한옥이 9채, 그밖에 절충식이 9채였다.

2. 조사방법

지역선정 및 주거의 개요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는 1987년 8월 19일에서 8월 22일까지 연대학원생과 학부생 총 14명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1988년 7월 3일에서 7월 5일까지 연대학원생과 학부생 12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사로 1988년 9월 3일에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를 통해 주택평면의 채취, 주거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 생활행위에 대한 조사, 가구에 대한 형태의 파악과 소유량, 구입년도, 사용장소 등의 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관찰과 면접방법을 이용하였고 관찰기록의 보조수단으로 사진촬영, 실측, 스케치를 병행하였다.

가구의 형태 파악을 위하여 가구의 재료, 구조,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특성에 관해 관찰 기록하고 스

케치와 사진촬영을 하였고, 가구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가구의 너비, 높이, 깊이를 실측하였고, 가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명, 가구내의 수납물품, 가구가 놓이는 실, 가구의 구입년도, 가구의 구입동기를 조사하였다.

조사자료는 관찰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표를 작성하여 주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기초를 두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였다.

3. 조사대상 주거의 개요

조사 마을의 조사대상주택 32채에 대한 주택특성과 거주자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가구의 소유실태

1) 각 실별 생활행위와 가구 소유 실태

가구는 주공간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가구 소유 실태를 각 실에서의 생활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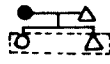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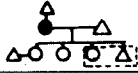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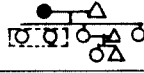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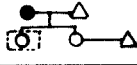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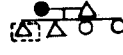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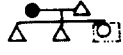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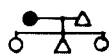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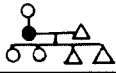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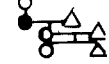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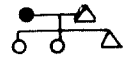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생활행위는 선행연구(최병숙, 1988)를 참고로 하여 취침 및 개인생활행위, 식사행위, 취사행위, 휴식·단란의 행위, 접객행위, 가사작업행위, 위생행위, 제례행위 등의 8가지 패턴의 생활행위로 분류하였고, 가구는 생활행위 패턴에 따라 분류하였다. 취침 및 개인생활 가구로는 옷장 및 이불장, 서랍장, 비닐옷장, 양말장, 전통유형의 장, 화장대, 사방탁자, 문갑, 책장, 책상, 침대가 있었으며 식사·취사 관련 가구는 그릇장, 찬장, 뒤주, 식탁세트였고, 휴식, 단란, 접객의 가구는 응접세트와 TV대를 들 수 있다.

조사대상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인 안방, 마루, 건넌방, 부엌의 생활행위와 가구소유실태(그림 1 참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은 취침, 접객, 식사, 단란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안방의 가구는 취침 및 개인생활에 관계된 수납가구인 옷장 및 이불장과 화장대, 단란 행위와 관련된 TV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안방의 가구가 대부분 수납가구이긴 하지만 수납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농촌의 비싼 생활 때문에 이불과 옷

<표 1> 조사대상 주거에 대한 일반적 특성

주택* 주번 호	주택** 유형	건 시 추 기	주택의 구 조	안 체 의 규모*** (평)	세대주 연 령	세대주 직 업	가족구 성 도
1	한 옥	1962	목 구 조	23.21	50	농 업	
2	절충식	1967	시멘트블럭조	16	53	회 사 원	
3	절충식	1975	시멘트블럭조	16.49	57	농 업	
4	한 옥	1943	목 구 조	18.79	42	축 산 업	
5	절충식	1980	시멘트블럭조	13.56	54	농 업	
6	절충식	1981	시멘트블럭조	8.41	35	회 사 원	
7	한 옥	1961	목 구 조	16.59	74	농 업	
8	한 옥	1945	목 구 조	15.61	29	회 사 원	
9	절충식	1976	시멘트블럭조	10.47	30	회 사 원	
10	한 옥	1932	목 구 조	13.24	33	농 축 산 업	
11	한 옥	1967	목 구 조	16.57	52	농 업	
12	양 옥	1984	붉은벽돌조	18.96	52	공 무 원	
13	절충식	1967	시멘트블럭조	18.00	62	무 직	
14	한 옥	1940	목 구 조	16.53	33	농 업	
15	양 옥	1987	붉은벽돌조	36.95	55	농 업	
16	한 옥	1888	목 구 조	21.02	53	공 무 원	
17	양 옥	1985	붉은벽돌조	17.4	50	무 직	
18	양 옥	1985	붉은벽돌조	14.03	46	건 축 업	
19	양 옥	1988	붉은벽돌조	13.48	27	집 관리 직	

20	양옥	1985	붉은벽돌조	16.83	31	공무원	
21	양옥	1984	붉은벽돌조	17.16	62	무직	
22	양옥	1983	붉은벽돌조	14.16	58	집임대	
23	한옥	1940	목구조	12.49	58	노동	
24	양옥	1982	붉은벽돌조	14.76	39	농업	
25	한옥	1947	목구조	21.19	66	농업	
26	한옥	1946	목구조	13.93	51	농업	
27	한옥	1968	목구조	18.12	47	상업	
28	한옥	1918	목구조	9.18	36	노동	
29	절충식	1984	시멘트블럭조	8.86	36	노동	
30	한옥	1987	목구조	15.66	41	토건업	
31	절충식	1973	시멘트블럭조	15.94	67	농업	
32	절충식	1968	시멘트블럭조	19.42	54	운수업	

●(▲) : 세대주, [] : 비동거인, ○ : 남, △ : 여

*주택번호는 조사지역에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정한 것이다.

**주택 유형은 구조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안채의 규모는 거주 공간만을 고려한 것이다.

의 수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수납장을 이용하는 이외에도 이불을 방 한쪽에 개어두거나 재봉틀, 서랍장위에 쌓아서 수납하였으며, 옷의 경우는 벽에 못을 박아 거는 현상이 보여져(22사례, 69%), 의류 및 침구의 수납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마루에서의 주된 생활행위는 식사와 접객행위이고, 그밖에 휴식 및 단란, 개인생활행위, 가사작업, 재래행위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주택의 마루는 여가를 위한 개방 공간으로 관혼상제의 재래행위가 행

해지는 공간이었으므로 가구가 거의 놓이지 않았고 식사 취사와 관계된 그릇장 정도만 놓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루 공간에 겨울철의 거주성 문제 때문에 문을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은 도시 주택의 형태를하여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공간 성격과 가구보유 상태가 바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직 그릇장이 마루의 주된 가구로 나타나나 응접세트의 도입으로 식사기능이 축소되고 접객·단란·휴식의 공간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가구분류	가구명	각실명 사례수	안방 (32)					마루 (31)					전년방 (30)					부엌 (32)							
			5	10	15	20	25	30	%	5	10	15	20	25	30	%	5	10	15	20	25	30	%		
취침 및 개인 생활 가구	옷장 및 서랍장	장	[Bar chart showing 100% ownership in 안방]					100																	
	서랍장	장	[Bar chart showing 22% ownership in 안방]					22																	
	비닐 옷장	장	[Bar chart showing 19% ownership in 안방]					19																	
	양말장	장	[Bar chart showing 3% ownership in 안방]					3																	
	전통 유형의 장	장	[Bar chart showing 3% ownership in 안방]					3																	
	합장	장	[Bar chart showing 38% ownership in 안방]					38																	
	화장대	대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안방]					6																	
	사방탁자	자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안방]					6																	
	문책장상	상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안방]					6																	
침대	대	[Bar chart showing 22% ownership in 안방]					22																		
식사·취사 가구	그릇장	장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안방]					6																	
	찬주	주	[Bar chart showing 61% ownership in 마루]					61																	
	식탁 세트	세트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마루]					6																	
휴식·단란객 가구	TV대	대	[Bar chart showing 53% ownership in 안방]					53																	
	접 세트	세트	[Bar chart showing 6% ownership in 마루]					6																	
			[Bar chart showing 19% ownership in 마루]					19																	

(그림 1) 조사대상 주택 32채의 가구 소유 현황

전년방은 취침 및 개인생활행위, 탁의·개의, 휴식의 행위가 이루어지나 자녀실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마루와 안방이 가족 공동의 공간인데 비해 개인실의 성격이 짙다. 전년방의 주된 가구는 옷장 및 이불장, 책상, 책장이었으나 침대와 응접세트를 도입한 경우도 보여져 생활의 입식화 요구를 보여준다.

부엌은 식사·취사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생활에서의 부엌은 식사의 공간은 아니었으나 부엌의 개조·개량으로 부엌의 규모가 증대되고 입식화 되면서 식탁이 도입되어(10사례, 31%), 점차 식사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부엌의 주된 가구는 식사·취사용 가구로 그릇장, 찬장, 식탁세트였다.

이상과 같이 각실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서로 연관시켜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농촌주택의 가구는 수납가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2) 가구별 구입시기

농촌주택에서 구입된 가구의 시기별 추이파악을 위해 구입년도를 조사하였는데(그림 2 참조), 구입시기는 크게 1960년 이전과 1960년에서 1975년경, 그리고 1976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60년 이전에 구입한 가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이 등장하고 이사등으로 인해 새것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있는 가구들을 통해 어떤 종류의 가구들이 사용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60년 이전에 구입되어진 가구는 뒤주, 전통 유형의 장, 합등의 전통가구와 옷장 및 이불장, 찬장, 좌식책상, 서랍장, 입식화장대임을 알 수 있다.

1961년에서 1975년경에는 옷장 및 이불장, 찬장, 서랍장, 입식화장대가 계속 구입되었고 그릇장도 구입되었다. 또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TV대가 새로운 수납가구로 등장하였고 좌식화장대와 입식 책상이 구입되었다.

1976년 이후에는 이전시기에 구입되었던 가구의외에 새로운 품목으로 비닐옷장, 양말장과 같은 간이가구 형식의 가구가 도입되어 수납가구의 부족을 해결하게 되었고, 식탁세트, 응접세트와 같은 입식화 가구들이 농촌주택 실내에 놓이게 되었으며 80년 이후에는 침대도 도입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옷장 및 이불장의 구입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대량생산 가구회사에 의해 가구의 양산이 활성화되어 농촌주택에서도 가구구입

<표 2> 옷장 및 이불장의 유형별 특성

유형	분석기준	사례수	구입연도	크기(너비)	재료	구 조				색채 및 마감처리	장 식	비 고
						문의개수	문의개폐형식	서랍노출유무	거울유무			
유형 I	5	1938~1962	120~140cm	소나무나왕	3개(4개)	여닫이	유	유	나무색을 살림	장식거의 없음	옷의수납고는 작고, 이불의 수납고 큼	
유형 II	12	1940~1972	180~226cm	합 판	2개3개	미닫이(여닫이)	무	유	갈색, 호마이카칠	자개박음 나무조각	오른쪽 문에 부착됨	
유형 III	7	1958~1981	178~230cm	합 판	2개	미닫이	무	무(유)	검은색, 카슈칠	자개박음	통칭 자개장으로 불림	
유형 IV	8	1973~1982	220~330cm	합 판	4개(5개)	여닫이	무	무	검은색, 카슈칠	자개박음	유형 III 이 대정교해진 형태	
유형 V	16	1977~1988	165~285cm	합 판	4개5개	여닫이	무(유)	무(유)	검은색, 카슈칠	나무물딩	대량생산 제품으로 합판과 자재 디자인 간결화	
유형 VI	8	1977~1988	140~149cm	합 판	3개	여닫이	유	무	갈색, 무광래커	나무물딩	유형 V 보다 단순	

*6가지 유형외에 기타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8개였다.

이 보다 용이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옷장 및 이불장, 그릇장의 구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가구가 농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가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76년 이전 시기에 구입되어진 가구를 보면, 좌식책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가구로, 수납가구가 농촌 주택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양적으로도 주류를 이루는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옷장 및 이불장, 그릇장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형태의 변화가 뚜렷이 보여지므로 다음절에서는 이들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유형분석을 하고 사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수납가구 유형 및 사용장소

1) 옷장 및 이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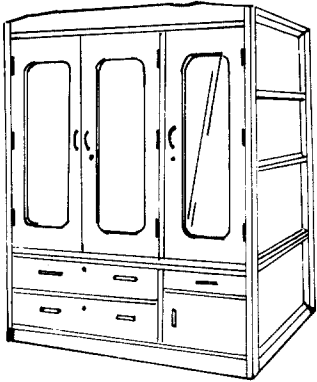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민가에는 안방에 장, 농을 비롯하여 반다지, 함, 께, 횃대를 두었다. 그러나 의생활의 변화로 옷장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옷을 옛날처럼 조그만 장에 개어두거나 횃대에 걸어둘 수 없게 되었고, 이불도 낮은 장위에 쌓아두기보다는 이불장에 넣어 수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옷장 및 이불장이 대형화

되고, 디자인에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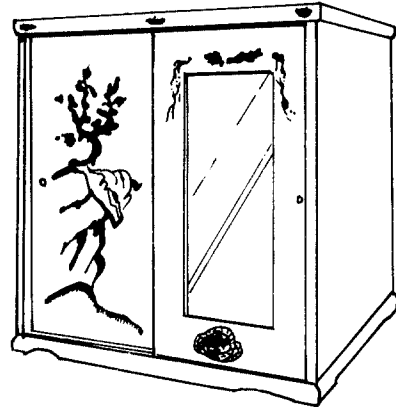
(1) 유형 분석

조사대상 주택에서 보여진 옷장 및 이불장 중에서 그 구입연도와 형태파악이 가능하였던 64개를 재료, 구조,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등 시각적 구분이 뚜렷한 외형적 특성에 의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가지 유형은 구입시기와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여졌다. 6가지 유형의 특성과 형태는 <표 2> 및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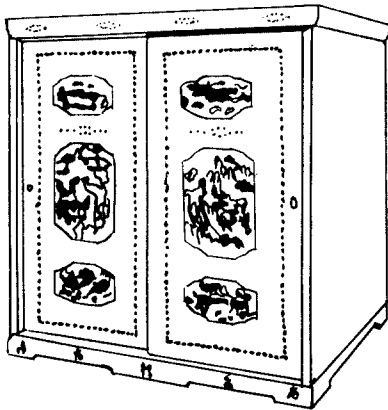
<표 2>에서 옷장 및 이불장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구입연도와 크기측면에서 보면 <그림 4, 5>와 같다. 1960년 이전의 유형은 I 과 II이고 50년대 후반에 유형 III이 나타난다. 61년에서 75년경까지는 유형 II, III이 계속 보여지고 유형 IV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76년경 이후에는 유형 III과 IV가 서서히 구입량이 줄면서 유형 V와 VI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형별 크기 분포를 보면 크기가 점점 증대되다가 1976년 이후에는 크기가 다양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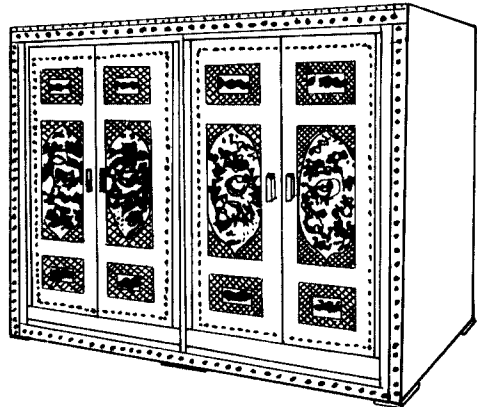
유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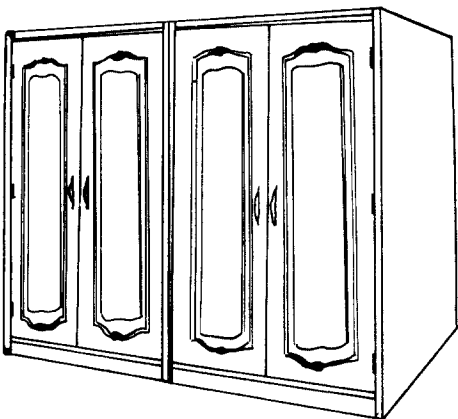
유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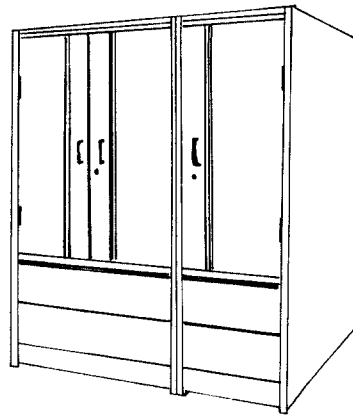
유형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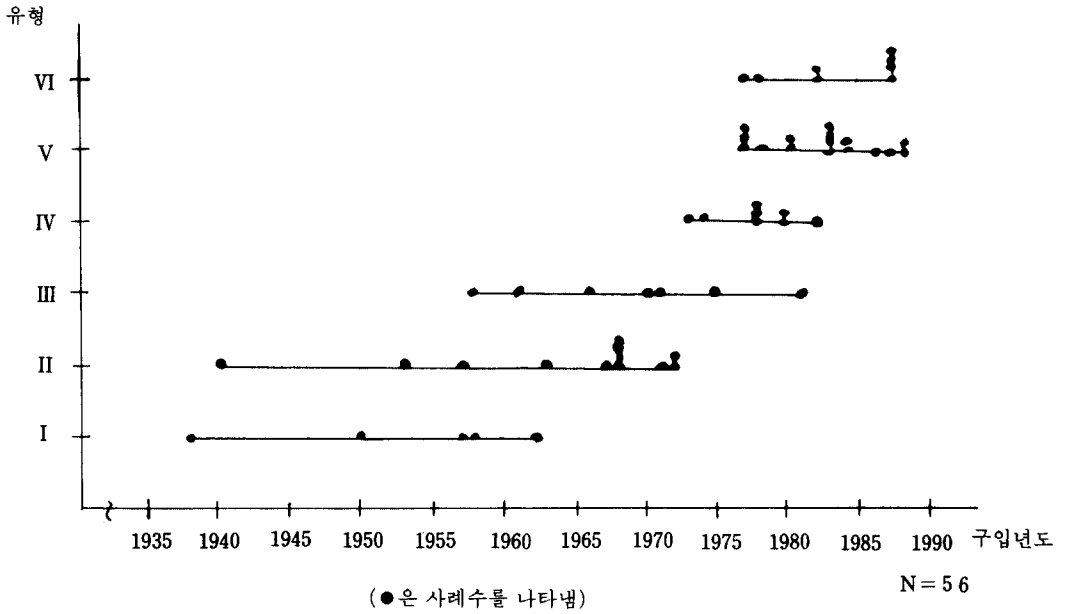
유형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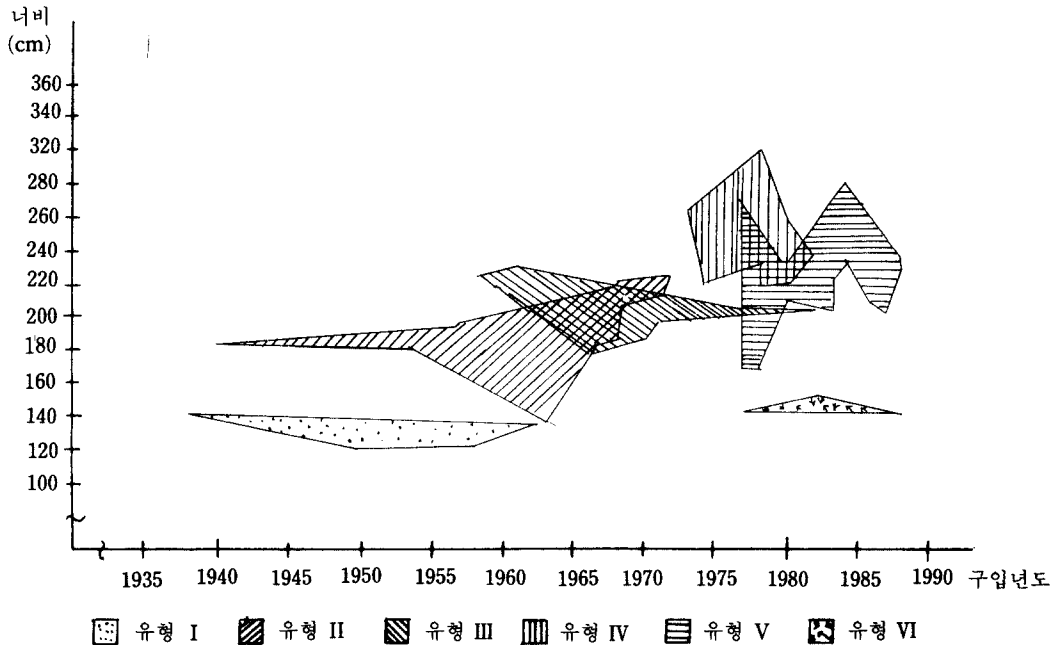
유형 V



(그림 3) 옷장 및 이불장의 유형별 형태



[그림 4] 옷장 및 이불장 유형과 구입년도



[그림 5] 옷장 및 이불장 크기 변화

(2) 소유량 및 사용장소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주택유형이 공존하고 있는데 조성희의 연구(1988)에 의하면 주택유형에 따라

공간사용과 가구 사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의 주택도 구조체에 따라 한옥, 절충식, 양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N=60*

각식명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주택당	실별 소유량**
		[Horizontal bar chart area with patterns for Hanok, Jeongchungsik, and Yangok]																		
안 방	방	[Pattern: Cross-hatch]																	1.14	
		[Pattern: Dotted]																	1.0	
		[Pattern: Diagonal lines]																	1.22	
마 루	루	[Pattern: Cross-hatch]																	0.15	
		[Pattern: Dotted]																	0.78	
		[Pattern: Diagonal lines]																	0.63	
건 년 방	방	[Pattern: Cross-hatch]																	0.78	
		[Pattern: Dotted]																	0.63	
		[Pattern: Diagonal lines]																	0.75	

한옥(14채)
 절충식(9채)
 양옥(9채)

*안방, 마루, 건년방의 옷장 및 이불장 총 갯수임.

**각 주택유형의 실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유량을 환산한 값이다.

(그림 6) 주택 유형에 따른 옷장 이불장 소유량과 사용장소

이러한 분류에 의한 주택유형은 시기별 단계별로 건 축년도에 있어서 뚜렷한 구분을 보여 주고 있었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도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농촌 주택의 형식이고 양옥은 도시주택 형식이며 절충식은 한옥에서 양옥으로 변화해가는 중간 단계의 평면형태를 보여주어 주택과 주공간 사용, 가구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절하였으므로 사용상태는 주택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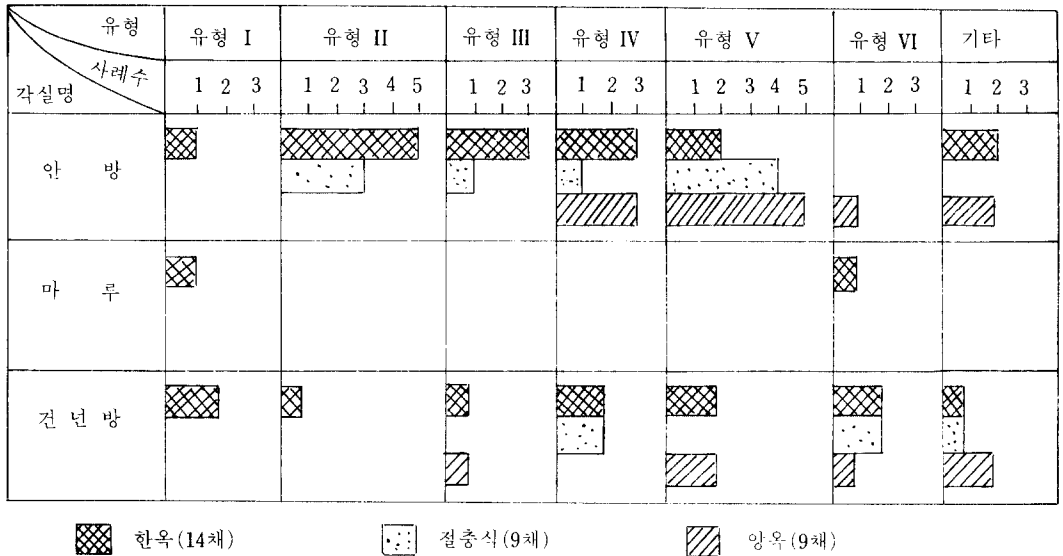
옷장 및 이불장은 조사대상 모든 주택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1주택당 소유량을 보면(그림 6참조) 한옥이 2.07개, 절충식이 1.63개, 양옥이 1.88개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는데, 소유량이 특히 적게 나타난 절충식의 의류 수납 문제해결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의류 수납가구인 서랍장의 소유량을 살펴본 결과 한옥이 0.64개, 절충식이 0.87개, 양옥이 0.44개로 절충식 주택에서는 서랍장을 이용하여 의류 수납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옷장 및 이불장의 유형별 소유량과 사용장소를 살펴보면(그림 7참조), 한옥에서는 각 유형을 골고루 소유하고 있었고 절충식에서는 유형 II, IV, V가 많았으며 양옥에서는 유형 V가 많이 보여진다. 이는

옷장 및 이불장의 구입시기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옷장 및 이불장의 구입시기 차이는 주택의 건축시기와 이동성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조사대상 주택에서 건축시기와 거주자의 거주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한옥에서는 거주자들이 오랫동안 이동이 없었고, 양옥은 198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으로 이곳의 거주자들은 다른곳에서 이사해온 경우가 많음이 말해준다. 이를 가구의 구입시기와 관련 하여 보면, 한옥의 옷장 및 이불장은 구입연도가 오래되었는데, 이는 주택의 신축, 혼수감 장만 등의 계기로 한번 구입된 후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주택의 이전이 있었던 양옥주택 거주자들은 이사시에 오래된 옷장 및 이불장을 정리하고 새것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옷장 및 이불장의 사용장소는 안방과 건년방이었다. 장소에 따른 유형을 보면, 안방에서는 유형 II, III, IV, V가, 건년방에서는 유형 I과 VI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I과 VI의 특징 중 다른 유형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크기, 색채와 마감처리, 장식특성으로, 크기면에서 볼 때 훨씬 작고,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면에서 보면 단순하고 소박함

N=60



(그림 7) 주택 유형에 따른 옷장 및 이불장 유형별 소유량과 사용 장소

<표 3> 그릇장의 유형별 특성

유형	분석기준 사례수	구입연도	크기	재료	구 조				색채 및 마감처리	장 식	비 고
					장의상하부 차이	상하부 차이	문의개폐형식	유리재료			
유형 I	4	1958~1967	86~91 cm	나 왕	없음	미닫이	반투명 유리	문틀 있음	갈색 paint칠	장식없음	찬장겸 그릇장으로 쓰임. 문틀의 서랍의 선반 구획.
유형 II	7	1965~1978	106~151 cm	합 판	있음	미닫이	출몰무늬 유리	문틀 있음	갈색 호마이 카	종이인쇄 자개박음	장식의 의도 보이나 조잡함.
유형 III	7	1967~1986	112~149 cm	합 판	있음	여닫이	투명 유리	있음 (k)	검은색 카슈 칠	자개박음	유형 II 보다 화려해지고 정교해짐.
유형 IV	21	1977~1988	60~150 cm	합 판	없음	여닫이 또는 서랍	"	없음	갈색 무광 래커	장식없음	대량 생산된 형태. 합판이 얇아 디자인 간결화

*4가지 유형의외에 기타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2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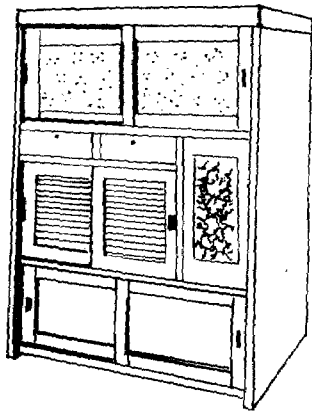
을 알 수 있다.

2) 그릇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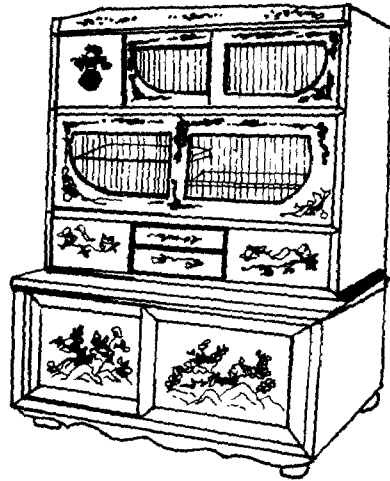
그릇장은 주로 그릇을 수납하는 가구로 수납의 기능 뿐 아니라 장식의 기능도 하여 흔히 '그릇 장식장'이라 불린다.

(1)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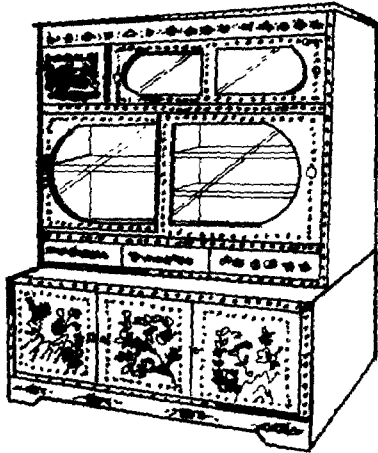
조사대상 주택에서 보여진 그릇장 중 구입연도와 형태파악이 가능하였던 그릇장 41개를 재료, 구조,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등의 시각적 구분이 뚜렷한 특성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구입시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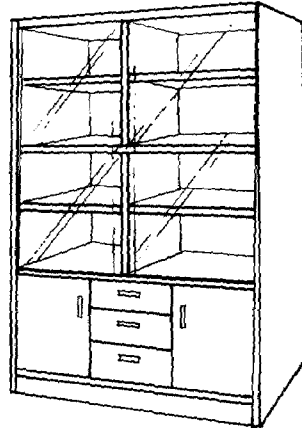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그림 8) 그릇장의 유형별 형태

크기의 차이를 보았다. 4가지 유형의 특성과 형태는 <표 3>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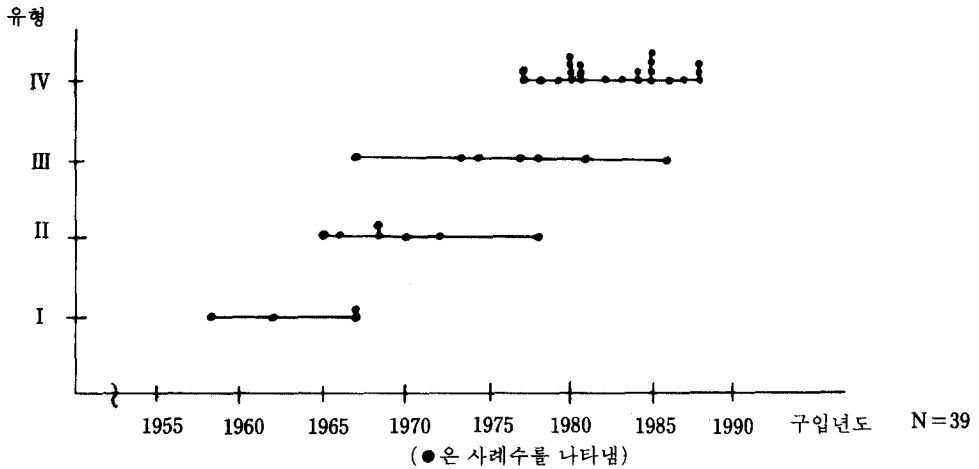
<표 3>에서 그릇장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구입년도와 크기측면에서 보면 (그림 9, 10)과 같다. 1975년 이전시기는 유형 I, II, III등의 대량생산 이전 가구들이 보여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산업에 있어서 기계설비에 의한 기업의 형성이 대체로 1960~70년까지 이루어진 것(강종환, 1982)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촌 주택에서의 대량생산가구 구입의 시차를 알 수 있다. 1976년 이후 시기에 비로소 대량생산 가구인 유형IV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릇장의 크기는 점차 커지다가 1976년경 이후에는 다양화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2개의 그릇장이 1개의 조를 이루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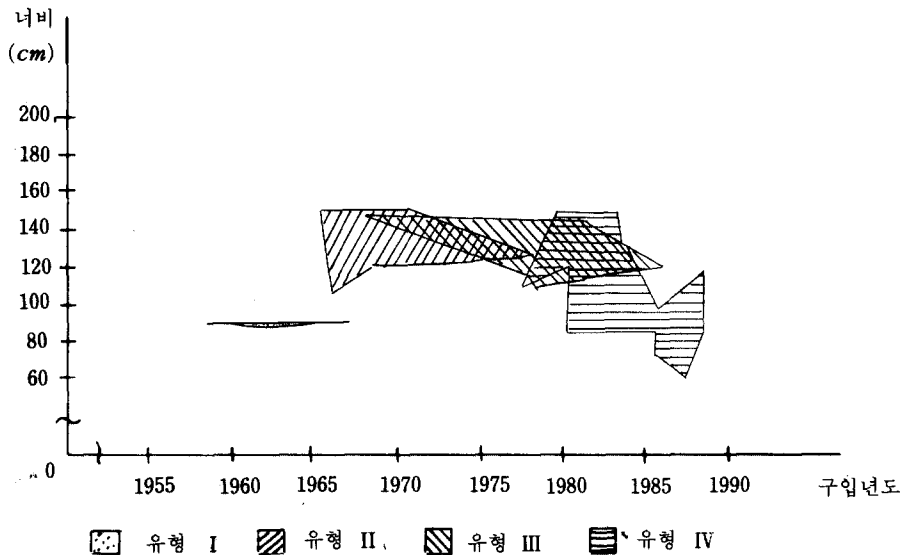
(2) 소유량 및 사용장소

옷장 및 이불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유형에 따른 소유량 및 사용장소를 살펴보았다.

그릇장은 평균적으로 한 주택당 1.22개를 소유하였다(그림 11참조). 이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주택당 한옥이 1.59개, 절충식이 0.67개, 양옥이 1.48개로 절충식에서는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절충식 주택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주택규모가 작고 마루 규모도 1평 이상 작기 때문에, 그릇장이 놓여지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더 협소하게 느껴지므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다



[그림 9] 그릇장 유형과 구입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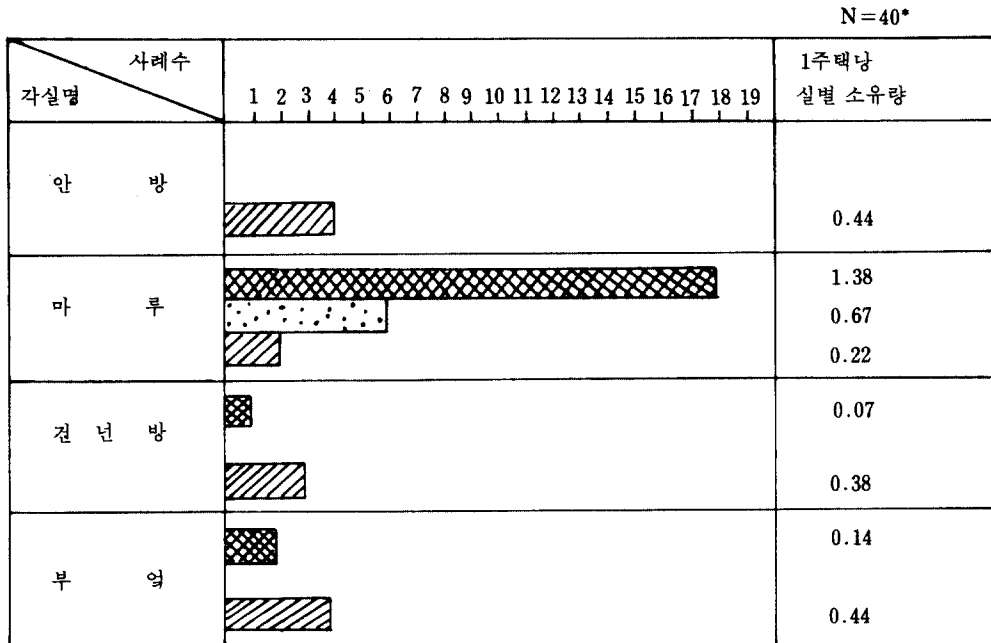
[그림 10] 그릇장 크기 변화

락·광등에 보관하며 그릇장을 따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파악된다.

그릇장을 두는 장소는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옥, 절충식에서는 거의가 그릇장을 마루에 두지만 양옥에서는 마루에 두는 경우가 15% (2사례) 밖에 안되어, 마루와의 다른 공간에 두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마루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공간 사용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양옥의 마루에 응접세트가 도입되고 입식화됨

에 따라 마루가 식사공간이기 보다는 휴식, 단란, 접객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가기 때문에 식사 관련 가구인 그릇장이 마루에 놓이는 경우가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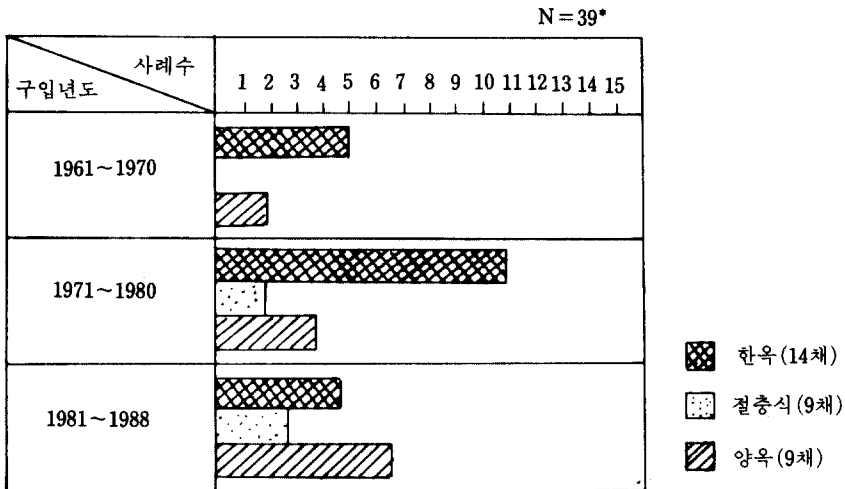
주택유형에 따라 그릇장의 구입시기를 [그림 12]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옷장 및 이불장과는 달리 주택 유형에 따른 구입시기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양옥 주택에서도 1960년대 초반것부터 보여지고 있어서, 이사, 새로운 주택의 건축시에도 새것으로 바



한옥(14채)
 절충식(9채)
 양옥(9채)

*안방, 마루, 건년방, 부업에 있는 그릇장 총 갯수임.

[그림 11] 주택 유형에 따른 그릇장의 소유량과 사용 장소



한옥(14채)
 절충식(9채)
 양옥(9채)

*안방, 마루, 건년방, 부업에 있는 그릇장 중 1개는 구입년도를 알 수 없었음.

[그림 12] 주택 유형에 따른 그릇장의 구입시기

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그릇장은 옷장 및 이불장에 비해 덜 중요한 가구로 인식

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릇장 사용기간은 비교적 긴 것으로 파악된다.

< 표 4 > 수납가구 변화의 추이

수납가구 분석기준		수납가구	옷장 및 이불장	그 룯 장	수납가구변화의 추이
유형의 변화	크 기		대형화, 다양화	대형화, 다양화	대형화, 다양화
	재 료		가볍고 얇은 합판	가볍고 얇은 합판	실용적/경제적 재료의 추 구
	구 조		간편함 증시	간편함 증시	생활에 맞는 간편함 추구
	색채 및 마감 처리		자연적 색채와 마감처리	자연적 색채와 마감처리	자연적 색채와 마감처리
	장 식		장식성, 단순성 추구	단순성 추구	다양성 추구
사용실태	사용장소의 변화			마루→부엌	실의 성격에 맞는 수납 가구 디자인
	사용장소에 따른 수납 가구 유형차이		안방 : 장식적이고 큼 건넌방 : 단순하고 작음		

2. 수납가구 사용장소의 변화

IV. 해석 및 논의

1. 수납가구 유형의 변화

옷장 및 이불장, 그릇장은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각 유형이 서로 중복(overlap) 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특징별로 살펴보면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과도기적 성격을 볼 수 있다.

크기의 변화양상은 2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구의 너비가 넓어지고 있었으며 70년대 후반부터는 크기가 다양화되었다.

재료는 소나무, 나왕과 같은 원목에서 합판으로 변화하였고 합판중에는 두껍고 무거운 초기의 합판에서 가벼운 합판재로 변화하였다.

가구의 구조 변화에 있어서는 가구재료, 기술의 발달로 구조적 안정을 위해 시도되었던 방법들이 상당히 단순화 되었다.

색채 및 마감처리는 소박한 나무의 색상으로부터 광택있고 화려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자연적인 색채와 마감처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식은 자개등이 장식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다시 장식성 없는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릇장의 사용장소는 한옥과 절충식에서는 마루였으나 양옥에서는 두 주택만 마루에 두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방과 부엌에 두었으며 특히 부엌에 두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양옥에서 그릇장이 마루에 놓이지 않는 경향은 마루공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공간사용에 변화를 가져왔고 부엌의 입식화로 그릇장을 둘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양옥의 마루는 응접세트의 도입으로 마루의 성격도 여름철의 식사공간이기 보다는 휴식·단란·접객의 공간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릇장은 식사공간화된 부엌으로 옮겨가거나 장식장의 형태로 마루나 방에 놓일 것으로 유추된다.

옷장 및 이불장은 실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가구의 유형이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옷장 및 이불장의 사용장소는 안방과 건넌방인데 가구 유형별로 사용장소의 차이를 본 결과 안방에는 옷장 및 이불장 유형 II, III, IV, V가 많았고 건넌방에는 유형 I 과 VI이 많이 나타났다. 유형 I, III, IV, V와 I, VI은 크기,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크기면에서 볼 때 건넌방에서 쓰이는 유형은 안방가구보다 더 작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공간규모, 공간 성격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건넌방 면적은 안방보다 평균 0.82평(24%) 작고, 건넌방에는 책장, 책상등의 개인용 생활가구가 놓여져 장이 놓일 면적

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건넌방의 사용자가 자녀이므로 장의 규모가 작아도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안방의 가구유형 II, III, IV, V는 건넌방의 것보다 훨씬 장식적이고 검은색이 많아 방별로 가구에 대한 색채, 장식에 대한 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방을 중시하고 가장 잘 꾸미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통주택에서 안방의 가구가 사랑방 가구보다 화려했던 것보다 상통한다고 하겠다.

3. 수납가구 변화의 추이

수납가구의 변화를 종합하여 가구와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1) 가구 소유실태 조사결과, 농촌주택 주공간내에서 수납문제 해결을 위한 가구계획의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의류수납의 경우 수납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바쁜생활로 인한 정돈되지 못한 실내의 모습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납장 갯수를 늘리기 보다는 한쪽 벽면을 전부 이용하여 붙박이 가구의 설치를 계획한다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의류를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의류를 벽에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옷장의 문쪽에 후크등을 설치하여 옷을 신속하게 걸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수납가구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가구와 생활공간과의 관계속에서 종합정리하여 수납가구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었다.

첫째, 크기는 대형화,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각실 공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릇장의 경우는 사용장소의 변화에 따라 크기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으나, 그릇장이 점차 부엌에 놓여 짐으로 해서 부엌의 크기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옷장 및 이불장은 놓이는 장소에 따라 크기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즉 건넌방에서는 안방보다 작은크기의 가구가 요구되어지므로 적절한 크기의 가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크기면에서 다양한 가구디자인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크기를 다양

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은 전체적으로 불매 단순성을 추구하였다. 그릇장은 사용장소가 마루에서 부엌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마루에 놓일 때 요구되었던 화려함, 장식성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 디자인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옷장 및 이불장의 경우는 색채 및 마감처리, 장식특성이 사용장소에 따라 달랐다. 안방의 옷장 및 이불장은 자재장식의 검은색이 많아 화려하였고 건넌방의 것은 소박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의 경제적 여건에 맞으면서도 그들의 화려함과 장식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안방용 수납가구는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건넌방의 수납가구는 방의 크기나 공간의 효율성등을 고려해 볼 때, 붙박이 수납장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 언

(1) 본 연구는 현지조사법의 연구방법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삼가리의 32채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농촌주택의 더 많은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농촌주택의 가구 유형변화와 소유량 및 사용장소를 조사분석한 것으로 도시주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는 가구유형 및 소유량 및 사용장소를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였으나, 각 공간별로 가구디자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조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는 수납가구에 한정하여 그 외형을 유형화하고 사용장소의 변화를 보았으나 전체가구로 확대하여 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가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의 결과, 실의 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수납가구 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었는데, 실의 기능 및 성격 파악은 그 실의 사용자 성격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생활, 연령을 고려한 수납가구 디자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6) 본 연구의 결과, 옷장 및 이불장 그리고 그릇

장 크기의 다양화 요구가 파악되었다. 크기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거주자의 생활요구를 고려한 수납가구 적정 치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종환, 우리나라 가구세계의 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특히 기성가구 소비자의 소비자 행동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2. 광인숙,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 김경동, 이은숙, 사회조사 연구방법 : 사회연구 논리와 기법, 박영사, 1986.
4. 김오성, 아파트 가구배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87.
5. 김정수, 개항이후 사회변동 요인이 주택양식과 실내구성에 미친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6. 김종인, 가구이용면에서 본 생활 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972, 10.
7. 김진일, 농촌취락과 생활공간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1980, 8.
8. 박 영, 전통적 수장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9.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10. 배만실, 이조 목공 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983.
11. 손영미, 농촌 개량 주택의 가구이용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2. 송중석, 이인희, 소득계층별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75, 10.
13. 안호협, 아파트의 가구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14. 이강희, 수납공간 및 가구류의 배치를 고려한 주택 각실 규모에 관한 조사연구—대구지방 중소득층 단
- 독주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5. 이경희, 이주영, 정재영, 가구이용면에서 본 주공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978
16. 이만갑, 한국 농촌사회 연구, 다락원, 1981.
17. 이 원,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8. 이진영, 개화이래 한국 전통가구의 양상과 변천에 관한 연구—국전과 선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9. 임재홍, 집합주거의 단위평면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20. 조재순, 농촌가정 생활 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21.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22. 최병숙, 서울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연구—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3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3. 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 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24.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25. 한필원,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6. 홍경희, 도시·촌락조사법, 법문사, 1987.
27. Alta, N. Lane and K. KayStewart, Typical chairs 1949~1968; An analysis of style and evolu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No. 1 Sep. 1980.
28. David Field, *Projects In Wood*, G. F. Putnam's Sons, 1985.
29. 小原三郎·加藤力·安藤正雄저, 국제출판공사 편집부역, *Interior Design*—계획과 설계, 국제출판공사, 1987.